

부재와 결핍 비루한 삶 따뜻한 시선으로 감싸기



본사 박성천 기자 두 번째 소설집 '복날은 간다' 출간



황폐화된 인물과 세상
살만한 곳으로 만들기
소설 7편 묶어

표제작 '복날은 간다'에 등장하는 유기견들의 운명 역시도, 주인공들의 비참한 상황과 맞닿아 있다. 생의 참담함, 부지불식간에 충돌하는 불가해한 사건들은 다름 아닌 견대야 하는 것이 '삶의 실체'라는 사실을 상징한다.

박 작가는 "우리 삶은 소설보다 훨씬 '소설적'이다. 소설 같은 삶, 소설 같은 인물, 소설 같은 사건이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들 곁에 출몰하지 않는가. 그 이야기들을 가장 의미 있고 극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릇으로 소설을 능가할 '도구'가 없다"고 창작 배경을 말한다.

한편 광주 출신 박 작가는 전남대학교 영문과와 동 대학원 국문과 박사과정을 졸업했다.(문학박사) 2000년 전남일보 신춘문예와 2006년 '소설시대'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소설 창작을 시작했다. 전남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소설집 '메스를 드는 시간', 인문서 '강 같은 세상은 온다',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 연구서 '해한의 세계 문순태 문학 연구', '짧은 삶 긴 여백 시인 고정희', '스토리의 변주와 서사의 자장' 등을 펴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소설가이자 광주일보 기자인 박성천 작家的 두 번째 소설집 '복날은 간다'(문학)가 출간됐다. 그동안 박 작가는 문학자와 문화예술전문지 '예향' 기자로 활동하면서 문학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담론과 인문학적 주제, 학술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글을 써왔다.

이번 작품집에서 박 작가는 황폐한 세상을 '어떻게 살 만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에 초점을 둔다. 수록된 7편의 소설들은 무거운 현실에 짓눌린 인물들의 삶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

등장인물들은 하나같이 있어야 하는 것은 없고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을 갖지 못한 부재와 결핍의 상황에 내던져져 있다. 평화로워 보이는 일상 너머에 자리한 삶의 무참함은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이 지친 상황과 다르지 않다.

'검은 어항'의 여자, '복날은 간다'의 윤석, '인 더 하우스'의 김기사, '모래인

행'의 아내가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고달프고 무참하다. 한 꺼풀 열여섯살의 이면에는 "왜 이리도 사는 게 힘들까"라는 인물들의 눈물 어린 하소연들이 담겨 있다.

표제작 '복날은 간다'는 30대 후반 남자의 시난고난한 세상살이의 이야기다. 학원강사로 일하다가 실직을 한 남자는 홀로 다섯 살 아이를 키우고 있다. 그는 차마를 잃은 아버지를 돌보아야 하는 딱한 처지에 놓여 있기도 하다.

남자는 이런 저런 비용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보신탕집에서 개 잡는 일을 한다. 광고를 봐도 그의 아버지는 젊은 시절 개장수였다. 남자는 어렸을 때부터 늘 개 냄새를 맡고 자란 터라, 개를 도살하는 일만큼은 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무더운 복(伏)날에 개비린내를 맡아가며 개를 잡지만 불행하게도 도둑으로 내몰리고 만다.

이렇듯 소설들은 한계상황에 내던져

진 소시민들의 일상을 현미경처럼 세세하게 들여다본다. 그러나 가혹하고도 무참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작가의 시선은 따뜻하면서도 애리하다. 조금의 과장이나 예두름 없이 날 것 그대로를 응시하는 서술 태도는, 그럼에도 삶은 지속된다는 보편적 인식에 닿아 있다.

소설가인 함정일 동아대 교수는 추천사에서 "박성천 소설의 미덕은 삶의 비루함과 냉혹함을 감싸 안는 작가의 따뜻한 시선과 인간적인 태도에 있다"면서 "무한 경쟁 체제 속에 낙오된 무력한 소시민의 지난한 현실을 예리하면서도 온기 가득한 삶의 언어로 빚어내고 있어 희귀한 가치를 발휘하고 있다"고 평한다.

소설집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모티브는 인물들의 처한 상황을 암시해주는 동물들이다. '인 더 하우스'에서 구덩이에 빠져 나오지 못하는 고양이와 그렇고,



대구시립무용단 '코끼리를 보았다' 달빛동맹 문화예술교류 무료 공연

내일 빛고을시민문화회관

한국 현대 무용계를 대표하는 홍승업씨가 이끄는 대구시립무용단이 광주를 찾는다.

달빛동맹 문화 예술 교류 일환으로 광주를 찾는 대구시립무용단은 16일 오후 7시30분 광주 빛고을시민문화회관에서 작품 '코끼리를 보았다'를 선보인다.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홍씨가 안무한 '코끼리를 보았다'는 독창적인 안무와 시적인 무대 미학으로 관객들에게 호평을 받은 작품으로 지난 8월에는 일본 니가타시에서 열린 '2015년 다 국제댄스페스티벌'에 초청됐다.

'코끼리를 보았다'는 대량 정보를 쏟아내는 요즘 세대를 몸짓으로 표현하고, 코끼리를 매개로 현대인의 인식과 사유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다.

1부에서는 세상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렸다. 대

상의 본질을 코끼리에 비유하고 그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을 무용수의 몸짓으로 표현했다.

2부 공연은 부분만 알고 전체를 보지 못하는 '장님이 코끼리를 만진다' 식 우화 속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관객은 부분을 매개로 전체를 상상하며 '코끼리를 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

영·호남 달빛동맹 문화예술교류행사는 대구와 광주의 문화적 연대감을 도모하기 위해 광주시와 대구시가 공동하는 추진하는 사업으로, 양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서로도시를 방문해 문화공연, 학술대회, 문화탐방 등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 11월 대구를 찾은 광주광역시립발레단의 낭만발레 '지젤'은 티켓예매 시작 하루 만에 매진됐었다.

전석 무료. 예매 광주시립발레단 문의 062-522-871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시립국악관현악단 송년 공연 '내일로 가는 우리음악'

오늘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이 2015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공연 '내일로 가는 우리음악'을 개최한다.

15일 오후 7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김광복 예술감독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광주 국악방송과 함께 진행하는 행사다.

레퍼토리는 관현악 '남도아리랑', 국악가요 '상사봉'과 '아리요(노래_ 이

슬),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중 'All I Ask of You', '맘마미아' 중 '댄싱 퀸'(소프라노 김혜미, 바리톤 박병국), 해금 독주(박남현) '그 저녁 무렵부터 새벽이 오기까지'와 시낭송(양지현)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민요연곡 '아리랑, 도라지, 날뉘리라, 경복궁타령', 관현악 '크리스마스 케를' 등이다.

티켓 가격 1만원(학생 50% 할인) www.gjart.net. 문의 062-415-540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여성재단 '제6차 광주여성가족 정책포럼'

중장기 비전 선편식도

광주여성재단(대표 장혜숙·사진)이 16일 오후 재단 8층 강의실에서 '제6차 광주여성가족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또 광주여성재단 중장기 비전 선편식도 함께 진행한다.

강현아 광주여성재단 정책연구실장의 진행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주제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역 성평등지수와 광주지역 성평등지수 분석'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광주지역 성폭력 범죄발생 지역·공간 특성 분석'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여 열리는 지정토론에서는 김수아 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 이소아 변호사, 서미정 광주시의원, 임수진 호남대 상담심리학과 교수 등이 참여해 여성가족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개회식에서는 장혜숙 대표이사의 인사말과 문인 광주시 행정부시장, 박혜자 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지며 광주여성발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식전 공연이 펼쳐진다.

문의 062-670-050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신승현씨 2015 한국춤비평가상 춤 연기상 수상

광주시립발레단 무용수

광주시립발레단 주역 무용수 신승현씨가 2015 한국춤비평가상 춤 연기상을 수상했다.

한국춤비평가상은 한국의 원로·중견 무용평론가들로 구성된 한국춤비평가협회(회장 이순영)가 1년 동안 공연한 춤 작품과 무용수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협회는 신 씨가 지난 10월 공연된 광주시립발레단의 모던 발레 '불안한 춤'과 '천학의 비상'에서 안정된 기량과 특출한 표현력으로 관객들의 감명을 받은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세종대 무용과를 졸업한 신씨는 지난 2007년 광주시립발레단 입단 후 다양한 작품의 주역을 맡아왔으며 제20



회 전국무용제 연기상, 20회 광주무용협회 신인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내년 1월 12일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개최되는 '2016 무용계 신년대회모임'에서 열린다.

한편 2015 베스트 작품은 ▲삼방 '삼인무 교육부' ▲장유경 무용단 '시인의 강' ▲허성인 '넵프'가 받았다. 또 춤연기상은 박성용, 특별상은 서울발레시어터와 부산춤공간 Shin 대표 신은주씨가 수상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p>7층 상가건물 매매 〈북구 우산동 구호전 사거리〉</p> <p>(7층) 건물 (사우나 건물)</p> <p>1층 (커피숍 입점 완료) 2층~5층 (사우나,주택) 6층~7층 (설계사 건설사)</p> <p>☆ 월 수익 1,000만 사우나 직접 운영시 (2,000만)</p> <p>(보 1억5천, 용 7억)</p> <p>매가 15억5천</p> <p>010-7384-7800</p>	<p>신축 상가원룸 매매 〈전대 정문 2분, 전대후문 2분〉</p> <p>(4층) 신축원룸</p> <p>1층 (상가) 2층~3층 (룸 10개) 4층 (주택)</p> <p>4면 을 대리석 시공 신축 원룸 / 내부 깨끗 / 풀옵션</p> <p>(보 4천만, 월 500만, 용 1억2천만)</p> <p>매가 6억 5천만</p> <p>① 북구 중흥동 원룸 상가 (전대 정문2분,코너) (월수익 500만) (1층상가, 2개) (4층 주택) (2~3층-원룸 10개) → 매가 6억8천 ② 전대 정문 상가 원룸 매매(1층상가12개-투룸12개,원룸6개) (보4천5백,월720만) → 매가 7억8천만 ③ 용봉지구 원룸 (미래도 A.P.T 코너) 룸-20개 (엘리베이터 있음) 월수익 800만 → 매가 11억</p> <p>010-6670-9800</p>	<p>근린상가 오피스텔 (소액투자) 〈매월 월세로 연금대비 하세요~〉</p> <p>① 상무지구 정연오피 3층(30평) 한국은행앞 (용5천(보1천,월70만) → 매가 1억3천만 ②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9평) 롯데마트 앞 상무나이트점 (용4천(보5백,월 42만) → 매가 7천5백만 ③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2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 점 (용5천(보5백,월50만) → 매가 8천5백만 ④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3평)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점 (용2천(보3백,월33만) → 매가 5천만 ⑤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 6층(45평) 을수리 (용5천(보1천,월60만) → 매가 1억1천만 ⑥ 서구 상촌동 대운파크 2층(11평) 운전역변출구 3분 (용2천(보2백,월32만) → 매가 3천8백만 ⑦ 광산구 첨단지구 월계동 상가(총40평) (보8백,월90만(용4천) → 매가 1억5천만 ⑧ 광양 광영동 상아A.P.T 12층(15평) 상기밀집지역,아파트단지 (보2백,월25만) → 매가 3천5백만 ⑨ 북구 중흥동 전대 정문/후문 2분거리 (상가원룸) 1층 (상가2간) 2층~3층 (원룸6개,투룸2개) 4층 (주택) (보4천,월520만) → 매가 6억8천만 ⑩ 북구 우산동 7층상가건물매매 (사우나 건물) (보1억2천,월1,020만) → 매가 16억</p>	<p>법률경매 〈특수물건 추천〉</p> <p>1. 북구 오룡동 (토 500평,건 900평) 삼성전자 정문 앞 * 1층 (상가) 2층~7층(오피스텔 룸 56개) 8층 (41평,주택및사무실) 향후 60억 가치 있음 (분할등기 가능) ☆ 분할 등기시 대출 25억 가능!! 감평가 35억 → 최저가 19억8천만 2. 남구 주월동 (토 206평,건 64.5평) * 남구청 부근 도로점 코너자리 감평가 16억8천 → 최저가 11억8천만 3. 북구 두암동 (토 44평,건 166평) * 두암초등학교 부근 도로점 코너자리 1층(상가) 2층~4층 (주택) 감평가 3억5천 → 최저가 2억5천만 4. 서구 마북동 (토 342평,건 84평) (주유소) * 광주이클렛 뒷편, 투자적합 감평가 9억9천 → 최저가 6억9천 5. 북구 중흥동 (토 84평,건 385평) (의료시설) * 광주역 남동측 부근 도로점, 한방병원 시설완비 감평가 8억3천 → 최저가 5억8천만</p> <p>(이외 다수 물건있음)</p> <p>010-6834-4800 / 010-6832-9700</p>
---	--	---	---